

적자가계의 특성 및 경제구조 분석*

An Analysis on the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Status
of Deficit Households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 수 양 세 정**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

Professor: Yang, Se-Je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status of deficit households compared to surplus households. Data from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2005 by NSO and 50, 207 salary/wage earners' household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were GLM, logit, and cluster analys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25.3 percent of the households were deficit households. Approximately half of the lowest 20% income group were deficit households. Income deficit households earned 1, 273 thousand less than that of surplus households, whereas consumption of deficit households was 1, 006 thousand more than that of surplus households. The average propensity of consumption of deficit households was 142.1. According to the logit analysis,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 deficit household included income level, household size, age and educational level, occupation, homeownership, car ownership, and wife's employment status. Deficit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5 types: 1) health care expenditure-dominated group, 2) housing expenditure-dominated group, 3) education expenditure-dominated group, 4) money transfer-dominated group, and 5) overall-overconsumption group. The overall-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상명대학교 일반연구기관 선발과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과제번호: 2008-A000-0096).

** 주저자, 교신저자: 양세정 (ysjlts@hanmail.net)

overconsumption group was the largest group of all at 58.5%. It was found that for all five groups, the changes in household size, income group, home ownership, and occupation of the individual wer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a certain group.

Key Words : 적자가계(deficit household), 흑자가계(surplus household), 경제구조(economic status), 가구유형(type of household), 가계소득(household income), 소비지출(consumption), 자산(assets), 부채(debt), 지출구성비(consumption ratio)

I. 서론

가계의 적자는 가계수지상에서 현금흐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소비지출의 규모가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국 시간이 흐르면 자산규모가 줄어들거나 새로운 부채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적자는 소득과 소비지출간의 문제임과 동시에, 자산과 부채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2000년대 들어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으며, 이제 가계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가계신용잔액은 99년말 212조 9.897억원이었던 것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09년 3분기에는 713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한국은행, 1999, 2009). 이는 가구당 4,000만 원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09년 들어 가계실질소득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대출금리의 인상에 대한 예측이 계속 나오면서 가계의 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가정학에서는 가계부채보유여부나 부채보유 규모에 대한 실태 및 개인이나 가계관련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부채부담, 부채변동, 부채의 연체행동에 관한 요인규명에 관심을 가져왔다

(성영애, 2006; 성영애, 최현자, 2000; 이은영, 허은정, 2005; 조혜진, 최현자, 2004 등).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적자에서 비롯되어진다. 가계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이 많을 경우 적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곧 새로운 부채의 창출로 이어진다. 가계부채가 현 시점에서의 사회적 이슈라면, 가계부채의 근원이 되는 가계적자에 관심을 가져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가계적자가 비합리적인 경제행위는 아니다.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인간은 일생 중 일정기간동안 소득을 얻게 되는 반면 일생동안 소비지출을 하게 되는데, 늘 소득과 소비지출이 같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평생 벌게 될 기대소득규모에 근거해서 일생동안 적정수준의 소비지출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이론에 의하면 생애동안 일정기간은 흑자여서 소득을 남겨두어야 하고, 또 일정기간은 남겨둔 소득을 사용해야 하는 적자기간이 공존하게 되며, 이런 경우 가계부채는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하지만 가계의 적자는 비합리적인 경제행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가계소득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필수재를 소비하기 위한 지출이 일어나며, 필수재의 정의 또한 비이성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래에 대한 낙관성에 근거한 현실지향적인 소비패턴도 비합리적인 적자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흑자액은

54만원으로 2007년 59만원보다 감소하였다.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월평균 44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의 한 보고서는 적자가계가 소비지출을 줄이지 않고, 부채를 통해서 소비를 함으로써 저소득층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종규, 2009). 일각에서는 통신비가 적자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교육비지출이 적자의 원인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원종욱, 2003).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회인구적 특성의 가계가 적자를 하게 되는지,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는 소비지출, 가계소득, 자산변동구조 등 가계경제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적자가계는 다양한 원인을 통해 발생한다고 볼 때 적자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자가계의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적자가계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가계특성과 경제구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적자가계의 특성과 발생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적자가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효율적인 가계수지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한 정책입안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유형의 적자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재무관리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집단은 누구인지를 구분함으로써 불필요한 적자가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적자의 개념

적자는 유량(flow)적 경제개념이다. 일정기

간동안 획득된 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이 더 큰 경우를 적자라고 한다. 저축에 관한 광의의 개념으로 적자를 정의해 보면, 적자란 일정기간 동안 증가한 자산액에서 증가한 부채액을 뺀 값이 음의 수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기간동안 순자산액의 변동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적자라고 한다(Bryant & Zick, 2006: 87-88).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큰 경우 가계는 소비지출을 위해서 가계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부채를 얻게 된다. 결국 일정기간동안 소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규모는 일정기간의 시작시점과 비교했을 때 마지막 시점에서의 자산의 감소분 또는 부채의 증가분 즉 순자산의 감소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계조사는 매월 소득과 소비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과 부채의 증가와 감소분은 연단위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그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적자가계로 사용하였다. 앞서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비지출에는 부채에 대한 이자분은 소비지출로 포함되며, 주택대출상환을 포함한 부채상환은 부채감소를 통한 순자산의 증가를 위한 지출에 해당되므로, 소비지출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적자관련이론

가계적자와 관련한 이론은 기간 간 효용극대화 이론을 근간으로 한다. 소비자는 일생동안 소비지출을 해야 하는 반면, 소득은 일정기간동안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는 적정 소비수준을 전 생애에 걸쳐 유지함으로써 일생동안의 소비를 통한 효용극대화를 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비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저축을 이용

하거나 혹은 차용을 함으로써 이를 해결한다. 따라서 기간 간 효용극대화 이론에 의하면 현재시점에서의 소비지출규모에 대한 가계의 의사결정은 가계소득과 시장이자율 및 소비자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Magrabi, Chung, Cha & Yang, 1991: 28-31).

$$\text{Cons}_{it} = f(Y_i, r_i, T_{it})$$

여기서 Cons_{it} 는 t회에 가계 i가 보유하고자 하는 소비지출액이며 Y_i 와 T_{it} 는 각각 다기간동안의 가계소득과 현재와 미래간의 시간선호를, 그리고 r_i 는 가계 i가 이용하고 있는 저축/부채의 시장이자율을 의미한다. 이때 소비지출액 Cons_{it} 는 현재의 가계소득수준 Y_{it} 과의 차이에 따라 적자 또는 흑자로 나타난 부분은 부채를 얻거나 또는 저축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채 (D_{it})에 대한 가계의 의사결정 역시 가계소득과 시장이자율 및 소비자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D_{it} = g(Y_i, r_i, T_{it})$$

이는 생애소득과 소비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가계의 소비행동, 저축행동, 차입행동을 설명해주며 생애주기가설의 토대가 되었다. 생애주기모델의 기본가정은 개별가계나 개인이 소비지출의 한계효용을 일생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가계나 개인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의 소비의 한계효용이 다른 기간 동안의 소비의 한계효용과 같도록 소비를 조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지출에 의해서 얻게 되는 생애동안의 총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전 생애에 걸친 소비수준의 평준화를 위한 가계의 저축행동과 차입행동의 필요성은 합리적 기대 모형인 생애주기 모

델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계는 현재의 제한된 소득에 따라 저축결정이나 차입결정을 하고 현재와 미래의 기간 간에 가계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게 된다.

부채와 저축에 관한 경제이론들은 축적된 자산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론에서 언급되는 부채는 엄밀히 말해서 신규부채이거나 적자라는 용어가 타당하다. 현재의 가계소득과 여타변수간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소비지출과 가계소득의 차이가 현재시점에서의 부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만약 축적된 자산에 의해서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면 이때 신규부채는 발생하지 않고, 자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적자규모(Deficit_{it}) 역시 위에서 언급한 부채수요와 동일한 논리로 설명되어진다.

생애소득에 근거하여 다기간간 소비수준을 평준화하기 위한 특정기간동안의 적자는 가계의 장기적 재무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며, 당연히 가계의 신용문제 또한 발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처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가계적자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가계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생애소득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시장이자율 또한 소비자가 조절할 수 없는 외생변수이며, 수명의 변동성이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는 경제상황의 변화나 경제정책적인 이유로 인해 부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유동성계약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은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생계비 지출 부분을 가정하였다. 마찬가지로 가계소득이 기초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적은 경우 그 가계는 적자일 수밖에 없으며, 해당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축적된 자산이 없다면 신규부채를 창출하여야만 한다. 기초생계비 지출을 위한 적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아닌지

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다. 기초생계비 또는 필수재라는 것이 모든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여건상 필연적으로 적자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는 가계들조차 필연적 적자인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적자가계구조인지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3. 적자가계에 관한 실증연구

적자가계를 다룬 연구는 제한적이다. 적자가계, 과소비가계, 신규부채수요가계 등 유사개념을 사용한 연구들이 소수 있다. 부채관련 연구의 경우 신규부채수요와 같이 유량적 개념에서의 새로운 부채수요를 다룬 연구만을 포함하며, 부채부담이나 부채보유액 등 저장적 개념을 다룬 연구들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여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미국가계의 과소비(overconsumption)를 다룬 연구가 Bae, Hanna와 Lindamood(1993)에 의해 일찍이 행해졌다. 이들은 재무비율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과소비율이라 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미국가계의 40% 가량이 과소비가계였으며, 소득수준이 과소비율에 가장 주요변수라 하였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소비율이 1.0이 넘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와 거의 동일한 연구방법의 연구가 국내에서도 수행된 바 있었다. 박명희, 이승신, 배미경(1996)의 연구는 도시근로자가계의 과소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과소비의 개념은 가계소득에 대한 총소비지출의 비율로 잡았다. 1994년 도시가계연보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과소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의 연령이 높을수

록,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수입원수가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과소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과소비율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최현자(1996)는 통계청에서 발간한 1991년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의 소득계층별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신규부채수요에 대한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규부채는 '빌린 돈'과 '할부 및 외상'의 합을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계소득이 많을 때, 부채부담이 높을 때, 가구원수가 많을 때, 가구주연령이 높을 때, 자가보유율이 낮을 때 신규부채수요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부채이용액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외식비 이외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및 교육비를 제외한 총소비지출과 8개의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림(2005)은 과소비부채가계, 일반부채가계, 무부채가계로 나누어 가계경제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과소비부채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부채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소득 및 지출구조, 자산변동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과소비부채가계 비율은 13.34%이며, 이들의 과소비는 약 89%가 자산에 의해 충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소비부채의 주요원인이 주요 비경상지출에 다수 근거하고 있음으로써 이들 과소비부채가계의 문제의 심각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성림과 성영애(2007)는 2002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222적자부채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적자부채가구는 1년동안의 가계수지에서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동시에 동기간에 새로운 부채가 발생한 가

제한 가계로 정의하였다. 적자부채가계의 유형은 지출비목을 11가지 경상지출과 11가지 비경상지출 등 총 22개 비목의 지출비중을 인자로 한 요인분석을 실행하였고, 추출된 요인점수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총 7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중 빈도가 매우 낮은 3개의 집단을 제외한, 4개의 집단에 대해 특성을 분석하였다. 빈도가 높은 순서로 생계형, 과소비형, 자동차구입형, 교육형 등이 도출되어졌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적자가계에 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적자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원종욱(2003)은 2002년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를 비교하였다. 한계계층, 서민층, 중산층, 고소득층 등 네 개의 소득계층별로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자가구와 흑자가구간 소득의 격차보다 소비의 격차가 훨씬 더 컸으며, 소비구성에 있어서는 적자가구가 거의 모든 소비항목에서 비적자가구보다 절대액기준으로 소비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규모와 흑자규모간 순격차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박종규(2007)는 최저소득층의 가계수지를 분석하면서 가계수지적자에 관심을 가졌다.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자료 분석을 통해서 1990년~1997년, 1999년~2006년 두 시간을 분석한 결과 최저소득층의 가계수지 적자율을 21.9% 포인트 증가하였고, 통신 및 교통비 지출이 중요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적자가계의 특성 및 경제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다룬다.

<연구문제 1> 적자가계는 흑자가계에 비해 가계특성과 경제구조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가?

1.1.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는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가계특성이 적자가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적자가계와 흑자가계는 가계경제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적자가계의 유형은 어떠하며, 각 유형의 가계특성과 경제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1. 적자가계 유형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2.2. 적자가계 유형별 가계경제구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3. 적자가계 유형별 사회인구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가계특성이 각 유형에 포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2005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1963년 이래 전국의 전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 수집하고 있다. 한 달을 기준으로 매일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품목별로 가계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며,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거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진다. 또한 도시가계연보는 일년 동안의 자산과 부채 증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산변동상황과 순자산 증감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본 자료는 매월 전국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전체 조사대상수가 2005년의 경우 87,705가구에 이르

나, 본 연구목적을 위해 가계소득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가계소득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비근로자가구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50,207근로자가구이다.

3. 분석방법

적자가계와 흑자가계, 적자가계의 유형간 가계특성과 경제구조를 비교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카이제곱검정, GLM분석(General Linear Models)을 사용하였다. GLM분석의 경우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할 때 집단의 사례 수간의 차이가 클 경우 ANOVA보다 더 적합한 방법을 제공한다(SAS Institute, 1990).

적자가계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종속변수가 적자가계와 흑자가계간의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회귀분석의 확장방법이다. 독립변수로는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계소득 요인 등을 독립변수로 모델에 포함하였다. 모델에 사용된 변수는 부채 및 과소비의 영향요인을 규명한 선행연구(박명희 외, 1996; 최현자, 1996; 이성림 & 성영애, 2000)에 근거하였고, 사용하는 도시가계연보가 제공하는 가계특성변수와 변수의 원코딩방법을 참조하였다.

적자가계/흑자가계 여부 = f (가구구성별,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교육수준, 가구주 직업, 맞벌이여부, 주택소유여부, 자동차소유여부, 가계소득분위)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중 질적변수인 가구구성별, 맞벌이여부, 주택소유여부, 자동차소유여부 변수는 이분변수이므로 각기 한 개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서열척도인 가구주교육수준의 경우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무학과 국졸인 가구주의 수가 미미하여 중졸이하로 묶어 비교 집단으로 사용하였으며, 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졸업, 대학졸업이상을 더미변수로 모델에 포함하였다. 가구주연령은 연속변수이나 연령대에 따라 가계소비지출 규모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듯이 적자가계여부에도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령대별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20대를 비교집단으로 하였고,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으로 나누어 분석모델에 포함하였다. 가계소득 역시 가구주연령과 유사한 이유로 5분위로 나누어 최하소득계층은 1분위를 비교집단으로 하고, 여타집단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구원수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적자가계의 유형을 범주화하기 위하여 적자가계만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특성자료가 얼마나 비슷한 값을 가지는지를 거리로 환산하여 유사한 집단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식료품, 외식비, 기타비소비지출, 조세 등 14개 소비지출비목의 지출구성비를 특성변수로 사용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추출된 집단들은 각기 집단에 속하게 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때 비교집단은 흑자가계로 하고 각각 로짓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적자집단에 속하게 되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모델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앞서 모델의 독립변수와 동일하다.

4. 주요변수의 정의

•가계소득: 가계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모두 포함하였다.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과 이전소득이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가구주를 비롯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한다. 사업 및 부

업소득은 가구원이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총수입 중에서 가계로 전입된 소득을 포함한다.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주식배당금 등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저작권이용료 등의 기타재산소득을 포함한다. 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보조금을 포함한다. 비경상소득은 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축의, 조의, 복권, 퇴직금, 장학금과 같은 비경상적인 소득을 포함한다.

•가계지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그리고 월평균부채상환액을 포함하였다. 소비지출은 식료품, 외식비,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집기, 의류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을 포함하며,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이 포함된다. 한편 월평균부채상환액은 주택부금상환을 포함한 부채상환금액을 포함하였다.

•적자가계와 흑자가계: 본 연구에서 적자가계는 앞서 언급한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에 근거하여,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가계는 적자가계로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가계소득과 가계지출이 같거나 가계소득이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가계를 흑자가계라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비교분석

1)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사회인구적 특성 <표 1>은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사회인구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50, 207가구 중 적자가계는 25.3%에 해당되는 12, 689가구였고, 흑자가구는 74.7%인 37, 520가구였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약 1/4이 적자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계 중 20.9%가 여

성가장가구이고, 남성가장가가 79.1%였다. 적자가계의 평균가구원수는 3.47명인 반면, 흑자가계는 3.43명이었다. 가구주가 대졸이상인 경우를 살펴보면 흑자가구는 31.4%였고 적자가구는 26.9%였다. 또한 적자가계 중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경우가 19.0%로 흑자가계의 13.5%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가계는 적자가계의 23.0%를 차지함으로써, 흑자가계에서 차지하는 36.9%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소득5분위별로 살펴보면, 적자가계 중 최하소득층인 하위 20%에 속하는 가계는 5, 030가구로 적자가계의 39.7%를 차지하였으며, 최고소득층인 상위 20%에 속하는 가계는 8.4%로 5개 소득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 적자가계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표 2>는 적자가계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이다. 모델 1은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만을 포함한 것이다. 그 결과 여성가구주일 때 남성가구주에 비해 적자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맞벌이가계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적자일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과 비교했을 때 가구주가 다른 직업군인 경우 적자가계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모델 2는 가계소득변수를 포함한 것이다. 가계소득수준을 조절하였을 때 여성가구주의 적자가계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어졌으며, 반면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적자가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소득수준하에서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관련 저축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소비성향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높은 가계소득집단에 속할수록 적자가계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특성

사회인구적 특성		전체	흑자가계	적자가계
총대상가구 수 (%)		50,207(100.0)	37,520 (74.7)	12,687 (25.3)
가구주성별	남	41,693 (83.0)	31,651 (84.4)	10,041 (79.1)
	여	8,514 (17.0)	5,868 (15.6)	2,646 (20.9)
가구원수	평균(인)	3.44	3.43	3.47
	2인 가계	11,080 (22.1)	8,337 (22.2)	2,743 (21.6)
	3인 가계	13,557 (27.0)	10,257 (27.3)	3,300 (26.0)
	4인 가계	19,472 (38.8)	14,540 (38.8)	4,932 (38.9)
	5인 이상	6,098 (12.1)	4,386 (11.7)	1,712 (13.5)
가구주 연령	평균(세)	43.22	43.21	43.23
	20대이하	3,138 (6.3)	2,416 (6.4)	722 (5.7)
	30대이하	16,768 (33.4)	12,676 (33.8)	4,092 (32.3)
	40대	17,687 (35.2)	12,834 (34.2)	4,853 (38.3)
	50대	8,866 (17.6)	6,728 (17.9)	2,138 (16.9)
	60대이상	3,748 (7.5)	2,866 (7.6)	882 (7.0)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404 (20.7)	7,606 (20.3)	2,798 (22.1)
	고등학교	19,754 (39.4)	14,470 (38.6)	5,284 (41.7)
	전문대학	4,868 (9.7)	3,681 (9.8)	1,187 (9.4)
	대학교이상	15,181 (30.2)	11,763 (31.4)	3,418 (26.9)
가구주 직업	공무원	5,387 (10.7)	4,449 (11.9)	938 (7.4)
	사무직	16,022 (31.9)	12,081 (32.2)	3,941 (31.1)
	생산직	21,315 (42.5)	15,920 (42.4)	5,395 (42.5)
	단순노무직	7,483 (14.9)	5,070 (13.5)	2,413 (19.0)
맞벌이여부	yes	16,766 (33.4)	13,843 (36.9)	2,923 (23.0)
	no	33,441 (66.6)	23,677 (63.1)	9,764 (77.0)
주택소유여부	있음	32,641 (65.0)	24,563 (65.5)	8,078 (63.7)
	없음	17,566 (35.0)	12,957 (34.6)	4,609 (36.3)
자동차소유여부	있음	36,772 (73.2)	27,838 (74.2)	8,934 (70.4)
	없음	13,435 (26.8)	9,682 (25.8)	3,753 (29.6)
소득5분위	1분위(~1,678,000원)	10,040 (20.0)	5,010 (13.4)	5,030 (39.7)
	2분위(~2,449,900원)	10,041 (20.0)	7,070 (18.8)	2,971 (23.4)
	3분위(~3,264,000원)	10,045 (20.0)	7,905 (21.1)	2,140 (16.9)
	4분위(~4,570,200원)	10,038 (20.0)	8,554 (22.8)	1,484 (11.7)
	5분위(4,570,201원~)	10,043 (20.0)	8,981 (23.9)	1,062 (8.4)

〈표 2〉 적자가계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 로짓분석 결과

독립변수		Model 1 (전체가계)	Model 2 (전체가계)
가구주성별	여성	0.173 **	-0.040
가구원수	(연속값)	0.097 **	0.243 **
가구주 연령 (20대이하)	30대	0.093	0.109 **
	40대	0.294 **	0.565 **
	50대	0.092	0.566 **
	60대이상	-0.061	0.049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등학교	0.107 **	0.273 **
	전문대학	0.098 **	0.333 **
	대학이상	0.043	0.440 **
가구구분 (단순노무직)	공무원	-0.834 **	0.257 **
	사무직	-0.396 **	0.342 **
	생산직	-0.350 **	0.017
맞벌이여부	맞벌이	-0.690 **	-0.270 **
주택소유여부	있음	-0.015	0.230 **
자동차소유여부	있음	-0.002	0.429 **
가계소득 (1분위)	2분위		-1.227 **
	3분위		-1.858 **
	4분위		-2.481 **
	5분위		-3.019 **
상수항		-1.092 **	-1.503 **
likelihood Ratio		1489.225 **	7022.983 **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3〉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가계경제수지(단위: 원, %): GLM분석결과

	전체가계	흑자가계(1)	적자가계(2)	(1)-(2)
가계소득(1)	3,269,839	3,591,408	2,318,843	1,272,565**
가계지출(2)	2,543,062	2,288,968	3,294,507	-1,005,539**
흑자액 (1) - (2)	726,777	1,302,440	-975,664	2,278,104**
평균소비성향 (2)/(1) × 100	77.8	63.7	142.1	-78.3**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4〉 적자가계의 평균소비성향별 가구 분포

소비 성향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	26.0	17.8	12.7	8.4	6.3	5.0	3.6	2.8	2.0	1.7	13.8
누적%	26.0	43.8	56.5	64.9	71.2	76.2	79.7	82.5	84.6	86.3	100.0

3)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가계경제구조

<표 3>은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가계경제 수지를 비교한 것이다. 흑자가계는 월평균 3,591,408원을 벌어서 2,288,968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소비성향은 63.7이었다. 반면 적자가계는 월평균 2,318,843원의 소득을 가짐으로써 흑자가계에 비해 100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인 반면, 가계지출은 흑자가계에 비해 100만원 이상 더 많은 월평균 3,294,507원을 사용함으로써 매월 975.664원의 적자규모를 보였다. 적자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142.1로, 평균적으로 적자가계는 가계소득의 거의 1.5배를 지출하고 있었다. 전체가구의 3/4를 차지하는 흑자가계의 흑자율은 3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계 대다수는 매년 흑자규모만큼의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적자가계의 적자비율별 가구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평균소비성향이 1.1이하인 가계가 전체 적자가계의 1/4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0%가 이에 해당되는데, 즉 이들 집단은 가계소득의 10%이하를 초과 지출하는 가계이다. 조사대상가구의 절반이하가 가계소득의 30%이상을 초과지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이 가계소득의 1.5배 이하인 경우가 7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이 가계소득의 2배를 넘는 경우 적자

폭이 큰 가계도 전체가구의 13.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는 소득 5분위별로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최하소득계층인 1분위 가계 중 적자가계는 절반을 차지하는 50.1%로 나타났다. 즉 최하소득 20% 계층은 절반이상이 적자가계인 셈이다. 전체가계 중 적자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였던 것을 감안하면, 적자가계는 저소득계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2분위부터는 적자가계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어서, 소득2분위는 29.6%, 소득3분위는 21.3%, 소득3분위는 14.8%였고, 최고 20%소득계층인 5분위의 경우도 10.6%가 적자가계인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계에 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흑자가계의 경우 3분위에서 5분위에 이르기까지 21.1%에서 23.9%의 분포를 보여서 소득5분위로 나누었을 때의 그룹당 20%에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저소득에서 적자가계가 많이 있기는 하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는 적자와 흑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6>은 소비지출5분위별 적자 및 흑자가계 비율을 나타낸다. 적자가계는 최고소비지출 계층인 5분위에서 거의 40%를 차지하였다. 이

(표 5) 소득5분위별 적자 및 흑자가계 비율

소득범위	소득 5분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적자가계비율	50.1 39.6	29.6 23.4	21.3 16.9	14.8 11.7	10.6 8.4	25.3 100.0
흑자가계비율	49.9 13.4	70.4 18.8	78.7 21.1	85.2 22.8	89.4 23.9	74.7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 소비지출5분위별 적자 및 흑자가계 비율

소비지출범위	소비지출 5분위					전체
	1분위 ~1,335,420	2분위 ~1,863,125	3분위 ~2,449,950	4분위 ~3,327,250	5분위 3,327,251~	
적자가계비율	19.1	18.3	19.0	23.4	39.6	25.3
	16.0	15.3	15.9	19.6	33.2	100.0
흑자가계비율	80.9	81.7	81.0	76.6	60.4	74.7
	21.3	21.5	21.3	20.1	15.9	100.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7〉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자산증감 상태: GLM분석결과

(단위: 원)

	전체가계	흑자가계(1)	적자가계(2)	(1)-(2)
기타수입(a)	3,295,668.0	2,824,449.3	4,689,230.4	-1,864,781.1**
- 자산감소로인한 수입	2,733,513.5	2,417,109.4	3,669,233.6	-1,252,124.2**
저축찾은금액	2,544,047.4	2,321,671.1	3,201,693.8	-880,022.7**
보험탄금액	18,687.4	15,734.6	27,420.0	-11,685.4**
계단금액	11,953.1	8,078.3	23,412.3	-15,334.0**
유가증권매각	4,341.9	2,060.4	11,089.2	-9,028.8**
부동산매각	83,944.3	28,926.2	246,652.5	-217,726.3**
기타자산매각/감소	70,539.4	40,638.9	158,965.8	-118,326.9**
- 부채증가로인한 수입	562,154.6	407,340.0	1,019,996.8	-612,656.8**
부동산관계빌런돈	52,622.5	19,048.5	151,913.0	-132,864.5**
월부 및 외상	396,779.1	329,486.5	595,787.5	-266,301.0**
기타부채증가	112,752.9	58,805.0	272,296.3	-213,491.3**
기타지출(b)	4,020,696.9	4,122,624.5	3,719,260.4	403,364.1**
- 자산증가를 위한 지출	3,354,207.4	3,525,136.1	2,848,710.2	676,425.9**
저금	2,800,472.1	3,063,784.1	2,021,764.2	1,042,019.9**
저축성보험료	256,000.0	266,114.5	226,087.9	40,026.6**
계부은금액	26,542.7	29,434.6	17,990.5	11,444.1**
유가증권구입	5,976.6	6,890.8	3,273.1	3,617.7
부동산구입	160,037.0	86,052.8	378,834.9	-292,782.1**
빌려준돈	105,042.6	72,792.2	200,418.6	-127,626.4**
기타재산구입/증가	136.4	67.2	341.1	-273.9
-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666,489.4	597,488.4	870,550.2	-273,061.8**
주택부금상환	36,874.3	25,373.1	70,887.5	-45,514.4**
월부 및 외상같은 금액	482,267.9	465,743.1	531,137.8	-65,394.7**
기타부채감소	147,347.2	106,372.2	268,524.8	-162,152.6**
기타지출(b)-기타수입(a)	725,028.9	1,298,175.2	-969,970.0	2,268,145.2**

*p<0.0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는 전체가구의 25.3%가 적자가계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격차가 나는 수치이다. 적자가계의 경우 소비지출 4분위에 비해 5분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큰 규모의 임시지출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지출이 적자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소비지출 5분위별로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하소비지출계층인 1분위는 흑자가계가 8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자가계는 19.1%에 불과하였다. 반면 최고소비지출계층인 5분위의 경우 흑자가계는 60.4%로, 최하소비지출계층인 1분위의 경우 80.9%가 흑자가계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격차가 있었다. 가계가 높은 소비지출을 하는 경우 흑자가계가 될 가능성은 줄어들을 알 수 있다.

<표 7>은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자산증감 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

시가지연보는 1년 동안의 자산과 부채 증감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수입은 자산 감소로 인한 수입과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을 합한 값으로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며, 기타지출은 자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을 합한 값으로 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타지출에서 기타수입을 차감함으로써 동기간 동안의 순자산증가분을 산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가구의 경우 72만5천원의 순자산 증가가 있었다. 흑자가계의 경우 129만8천원의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던 반면,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았던 적자가계는 97만원의 순자산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적자가계는 부채상환액보다 새로운 부채증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기간 중에 102만원의 부채증가가 있었으며, 반면 87만원의 부채를 상환하였다.

<표 8>은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소득원천

(표 8)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소득원천별 규모 및 구조: GLM분석결과

(단위: 천원, %)

구 분	소득액			구성비		
	흑자가계(1)	적자가계(2)	(1)-(2)	흑자가계(1)	적자가계(2)	(1)-(2)
총가계소득(연평균)	3,591,408	2,318,843	1,272,565**	100.0	100.0	-
· 경상소득	3,412,804	2,179,273	1,233,531**	95.0	94.0	1.0**
- 근로소득	3,081,489	1,990,822	1,090,667**	85.8	85.9	-0.1
· 가구주소득	2,446,128	1,737,555	708,573**	68.1	74.9	-6.8**
· 배우자소득	391,770	174,663	217,107**	10.9	7.5	3.4**
· 기타가구원소득	243,590	78,604	164,986**	6.8	3.4	3.4**
- 사업소득 및 부업소득	137,439	58,028	79,411**	3.8	2.5	1.3**
- 재산소득	40,489	24,726	15,763**	1.1	1.1	0.0
- 이전소득	153,388	105,697	47,691**	4.3	4.6	-0.3**
· 공적보조금	50,392	39,623	10,769**	1.4	1.7	-0.3**
· 공적연금	23,131	14,574	8,557**	0.6	0.6	0.0
· 기타사회보장수혜	27,262	25,050	2,212	0.8	1.1	-0.3**
· 사적이전	102,997	66,074	36,923**	2.9	2.8	0.0
· 비경상소득	178,604	139,570	39,034**	5.0	6.0	-1.0**

*p<0.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별 규모 및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모든 소득 유형에 대해 흑자가계는 적자가계에 비해 소득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별로 비교해 보면, 흑자가계의 경우 적자가계에 비해 사업소득 및 부업소득에서 3.1배였으며, 소득 규모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근로소득의 경우 흑자가계는 가구주 외 가구원들의 소득규모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흑자가계는 한달 평균 3,081,489원을 벌어들이는 반면, 적자가계의 근로소득은 1,990,822원이었다.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흑자가계는 가구주근로소득의 비중이 전체가계소득의 68.1%로 적자가계의 74.9%에 비해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흑자가계는 배우자근로소득과 기타가구원근로소득이

높은 구성비를 보였다. 적자가계의 경우 이전 소득의 구성비가 흑자가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적보조금과 기타사회보장수혜에서 적자가계의 소득구성비가 흑자가계에 비해 높았다.

<표 9>는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및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적자가계는 흑자가계에 비해 월평균 1,028,294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식비지출, 조세, 연금사회보험에 대한 지출만이 흑자가계가 적자가계에 비해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외식비지출액의 두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적자가계의 경우 교육비에서 220,815원, 교통통신비에서 219,066

〈표 9〉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및 구성비: GLM분석결과

(단위: 원)

구 분	지출액			지출구성비		
	흑자가계(1)	적자가계(2)	(1)-(2)	흑자가계(1)	적자가계(2)	(1)-(2)
총가계지출	2,288,968	3,294,507	-1,005,539**	100.0	100.0	-
- 소비지출	1,886,227	2,766,965	-880,738**	82.4	84.0	-1.6**
· 식료품	284,177	312,371	-28,194**	12.4	9.5	2.9**
· 외식	266,866	263,536	3,330	11.7	8.0	3.7**
· 주거	53,797	113,367	-59,570**	2.4	3.4	-1.1**
· 광열·수도	96,573	109,015	-12,442**	4.2	3.3	0.9
· 가구집기·가사용품	77,765	148,294	-70,529**	3.4	4.5	-1.1**
· 피복·신발	106,629	137,865	-31,236**	4.7	4.2	0.5
· 보건·의료	79,673	163,023	-83,350**	3.5	4.9	-1.5**
· 교육	178,611	399,426	-220,815**	7.8	12.1	-4.3**
· 교양오락	81,767	164,133	-82,366**	3.6	5.0	-1.4**
· 교통통신	318,933	537,999	-219,066**	13.9	16.3	-2.4**
· 기타소비지출	341,435	417,936	-76,501**	14.9	12.7	2.2**
- 비소비지출	402,741	527,542	-124,801**	17.6	16.0	1.6**
· 조세	115,655	99,338	16,317**	5.1	3.0	2.0**
· 연금사회보험	201,978	189,658	12,320**	8.8	5.8	3.1**
· 송금	85,108	238,545	-153,437**	3.7	7.2	-3.5**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원, 송금에서 153,439원을 흑자가계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자가계는 특정 항목의 과다지출이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자녀에 대한 과다한 사교육비나 타지의 자녀에게 보내지는 송금, 자동차구매나 통신기구의 다양화와 보편화에 따른 비용지출 등이 무리한 가계지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측된다.

지출구성비를 살펴보면, 적자가계는 비소비 지출에서 흑자가계에 비해 높은 소득구성비를 보였는데, 이는 적자가계의 송금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1%로 흑자가계의 3.6%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흑자가계는 적자가계에 비해 식료품과 외식비지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보였고, 반면 교육비, 교통통신비, 송금은 적자가계의 지출구성비가

흑자가계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적자가계 유형별 비교

1) 적자가계 유형별 소비지출 구성비

<표 10>는 군집분석의 결과 나타난 집단들의 소비지출행태를 정리한 것이다. 적자가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5집단이었다. 이들은 7,427가구로 전체가계의 14.8%를 차지하며, 적자가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타집단에 비해 식료품비, 외식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등에서 높은 지출구성비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교통통신비는 17.8%를, 기타소비지출은 16.3%라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체로 선택재 품목에서 높은 지출구성비를 보임으로써 소비행태

(표 10) 군집분석에 의한 집단별 가계지출구성비: GLM분석결과

	1집단 (보건의료비형)	2집단 (생계형)	3집단 (교육비형)	4집단 (송금형)	5집단 (과소비형)	F값
sample 수	1,292	884	2,261	823	7,427	12,687
(%적자가구대비)	(10.2)	(7.0)	(17.8)	(6.5)	(58.5)	(100.0)
(%전체가구대비)	(2.6)	(1.8)	(4.5)	(1.6)	(14.8)	(25.3)
· 식료품	11.1	13.6	10.0	7.6	14.6	224.41**
· 외식	7.4	9.1	9.0	6.1	10.7	182.71**
· 주거	1.7	26.8	1.9	1.4	2.0	5489.22**
· 광열·수도	4.3	6.1	3.8	2.9	5.1	89.70**
· 가구집기·가사용품	11.0	5.2	2.0	1.9	3.7	326.74**
· 피복·신발	3.4	3.3	3.9	2.9	5.2	82.19**
· 보건·의료	26.3	2.1	2.1	2.2	3.0	3551.84**
· 교육	4.0	4.8	35.9	3.6	5.3	5938.23**
· 교양오락	3.0	2.5	2.8	2.3	5.6	105.23**
· 교통통신	9.9	12.2	10.4	8.8	17.8	328.01**
· 기타소비지출	9.5	8.3	9.1	9.2	16.3	435.71**
· 조세	1.7	1.2	1.8	2.5	2.1	14.35**
· 연금사회보험	5.2	3.9	5.7	4.9	6.7	76.62**
· 송금	1.6	0.8	1.4	43.5	1.7	10179.1**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적자가계집단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소비형 적자가계집단이라 할 수 있다.

적자가계유형 중 3집단은 교육비지출에 35.9%를 지출함으로써 소비지출의 1/3이 넘는 액수를 교육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은 적자가계의 1.78%에 해당되며, 전체가구의 4.5%라는 제법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에 걸맞지 않는 자녀교육비 지출이 가계수지가 적자가 되게 한 원인이 된 집단이다.

세 번째로 많은 적자가계유형은 1집단으로, 이들은 보건의료비에 26.3%의 소비지출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자가구의 10.2%에 해당되며, 전체가구의 2.6%가 이에

속한다. 이들 집단은 가구집기·가사용품에 있어서도 10.8%의 지출구성비를 보여, 타 집단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적자가구의 7.0%에 불과한 2집단의 경우 주거비지출이 26.8%인 것으로 나타나 이 적자가구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비 지출이나 또는 일시적인 주택수리비 등의 지출이 적자를 야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적자가구의 6.5%이면서 전체가구의 1.6%를 차지하는 4집단의 경우 가계소비지출의 43.5%를 차지하는 송금이 적자의 절대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2) 적자가계 유형별 가계경제구조

<표 11>은 군집분석에 의한 집단별 가계수지를 나타낸다. 5개 집단 중 4집단이 가장 높

<표 11> 군집분석에 의한 집단별 가계경제수지: GLM분석결과

	1집단 (보건의료비형)	2집단 (생계형)	3집단 (교육비형)	4집단 (송금형)	5집단 (과소비형)	F값
가계소득(1)	2,471,334	1,778,559	2,707,816	3,367,022	2,122,058	173.01**
가계지출(2)	3,500,826	2,764,293	3,746,962	5,624,211	2,925,826	146.05**
· 식료품	302,447	257,497	316,952	310,254	319,470	23.07**
· 외식	239,510	198,445	290,742	261,721	267,382	41.28**
· 주거	53,877	932,223	57,083	66,203	48,612	774.88**
· 광열·수도	108,619	105,657	113,871	114,585	107,388	3.70**
· 가구집기·가사용품	494,697	213,391	73,732	98,632	108,488	183.89**
· 피복·신발	121,143	77,276	139,398	142,248	147,033	24.01**
· 보건·의료	930,756	50,770	78,293	103,933	75,171	1375.07**
· 교육	154,959	122,670	1,501,165	217,102	159,696	1624.00**
· 교양오락	126,175	75,925	115,907	129,949	199,704	29.83**
· 교통통신	306,538	273,257	348,003	393,825	683,592	35.55**
· 기타소비지출	328,718	208,534	354,497	485,321	470,227	45.59**
· 조세	80,571	108,766	86,967	220,495	91,821	12.78**
· 연금사회보험	183,758	111,298	203,742	236,645	190,517	31.96**
· 송금	69,058	28,584	66,610	2,843,298	56,725	872.46**
흑자액 (1)-(2)	-1,029,492	-985,734	-1,039,146	-2,257,189	-803,768	66.21**
평균소비성향(2)/(1)	1.417	1.554	1.384	1.670	1.379	0.38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은 가계소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집단은 한 달 평균 3,367,022원의 소득이 있으면서 이들 집단은 한달 평균 5,624,211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5개 집단 중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높은 평균소비성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한달평균 적자액은 2,257,189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집단과 5집단은 적자집단 중 가장 낮은 소비성향을 가진 집단이었으며, 2집단의 경우 한달 평균 1,778,559원의 낮은 소득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형적자가계의 특성을 보였다. 1집단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에서 93만원이 넘는 높은 지출을 보여, 가구원의 의료비가 해당가구를 적자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비지출구성이 높은 3집단은 교육비지출이 한달에 15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다. 4집단은 한 달 평균 284만원을 타 가구에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해외유학 보낸 경우이거나 또는 노인가구를 부양하는 가계들이 이 집단에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2>는 집단별 자산증감 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평균소비성향이 다섯 집단 중 가장 높았던 4집단의 자산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 년간 4집단의 자산 감소분은 692만원인 반면, 자산증가분은 465만원으로 총 227만원의 자산 감소가 있었다. 다음으로 3집단의 자산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자녀교육비와 관련한 가계적자가 가계자산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5집단의 경우 79만원의 자산 감소폭을 보여, 타 집단에 비해서는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3) 적자가계 유형별 사회인구적 특성

<표 13>는 군집분석에 의한 집단별 사회인구적 특성을 나타낸다.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구성비가 높았던 1집단의 경우 60대 이상의 노인가구의 비중이 12.5%를 차지하였다. 주거비지출구성비중이 적자가계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2집단의 경우 여성가구의 비중이 31.6%로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가구주 연령 또한 가장 낮았다. 주택소유율과 자동차소유율에서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 집단의 79.4%가 하위 40% 소득

<표 12> 군집분석에 의한 집단별 자산증감 상태: GLM분석결과

	1집단 (보건의료비형)	2집단 (생계형)	3집단 (교육비형)	4집단 (송금형)	5집단 (파소비형)	F검증
기타수입(a)	4,971,480	7,646,899	4,352,611	6,919,236	4,143,459	28.20**
- 자산감소로 인한 수입 ¹⁾	3,726,652	6,084,994	3,679,265	5,635,973	3,150,717	29.86**
-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²⁾	1,244,828	1,561,906	992,742	1,283,262	992,742	8.53**
기타지출(b)	3,953,640	6,631,851	3,312,076	4,648,694	3,352,783	21.01**
- 자산증가를 위한 지출 ³⁾	3,110,427	5,796,496	2,624,650	3,829,324	2,411,868	27.62**
-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⁴⁾	843,213	835,354	687,427	819,370	940,915	2.47**
기타지출(b)-기타수입(a)	-1,017,840	-1,015,048	-1,040,535	-2,270,542	-790,676	19.33**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1) 저축찾은금액, 보험탄금액, 계탄금액, 유가증권매각금, 부동산매각금, 기타부채증가를 포함함.
- 2) 부동산관계빌런돈, 월부 및 외상, 기타부채증가를 포함함.
- 3)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부은금액, 유가증권구입, 부동산구입, 빌려준돈, 기타재산구입 포함함.
- 4) 주택부금상환, 월부 및 외상값은 금액, 기타부채감소 포함함.

〈표 13〉 군집분석에 의한 집단별 사회인구적 특성

사회인구적 특성		1집단 (보건의료비형)	2집단 (생계형)	3집단 (교육비형)	4집단 (송금형)	5집단 (과소비형)	χ^2 값
가구주성별	남	81.7	68.4	79.3	79.7	79.9	68.82**
	여	18.3	31.6	20.7	20.3	20.1	
가구원수	평균(인)	3.39	3.31	3.89	2.81	3.45	192.72**
	2인 가계	23.6	31.3	7.0	43.9	22.1	908.61**
	3인 가계	29.2	23.8	19.5	35.6	26.7	
	4인 가계	35.5	30.4	54.3	16.4	38.3	
	5인 이상	11.7	14.5	19.3	4.1	13.0	
가구주 연령	평균(세)	43.56	42.53	43.42	46.88	42.80	33.64**
	20대 이하	6.3	9.8	2.0	3.4	6.5	1032.74**
	30대 이하	36.1	32.7	21.9	16.2	36.5	
	40대	29.9	35.1	61.3	40.0	32.9	
	50대	15.2	14.3	13.8	34.5	16.4	
	60대 이상	12.5	8.1	1.1	6.0	7.7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5	30.9	15.0	24.8	22.4	190.77**
	고등학교	37.6	46.3	44.9	37.9	41.2	
	전문대학	11.0	8.6	8.3	8.1	9.6	
	대학교 이상	26.9	14.3	31.8	29.2	26.7	
가구주 직업	공무원	7.3	2.9	10.7	15.1	6.1	422.54**
	일반사무직	32.7	15.8	34.7	31.4	31.5	
	생산직	44.3	43.9	39.1	41.4	43.2	
	노무직	15.1	37.3	15.5	12.1	19.2	
맞벌이 여부	yes	22.2	20.0	28.4	26.7	21.5	58.60**
	no	77.8	80.0	71.6	73.3	78.5	
주택소유여부	있음	66.6	31.5	70.5	76.3	63.5	503.95**
	없음	33.4	68.6	29.5	23.7	36.8	
자동차소유여부	있음	69.3	47.9	72.1	75.1	72.3	240.63**
	없음	30.7	52.1	27.9	24.9	27.7	
소득5분위	1분위	32.6	62.4	27.8	23.9	43.5	893.29**
	2분위	25.5	17.0	22.8	16.8	24.7	
	3분위	19.4	8.3	19.9	16.2	16.6	
	4분위	12.9	6.0	17.1	19.4	9.7	
	5분위	9.6	6.3	12.4	23.7	5.5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수준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지출이 많았던 3집단은 가구원수가 가장 많은 집단이었다. 평균 3.89명이고, 가구원수가 4인이상인 경우가 이들 집단의 3/4에 육박하는 73.6%의 수치를 보였다. 가장이 40대인 경우가 61.3%로 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31.8%로 가장 높은 학력을 보였다. 이들 집단은 맞벌이비중이 타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소득분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가구에 대한 송금 지출비중이 컸던 4집단의 경우 가구원수가 2.81인으로 가장 적었고, 이들 집단의 80%가량이 2~3인 가구였다. 이들 집단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46.88세로 5개 집단 중 가장 높은 연령을 보였으며, 공무원이 1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특징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 집단은 72.3%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집단의 3/4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집단의 23.7%가 최상위소득 20%에 속하는 반면, 23.9%가 최하위소득 20%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단의 소득집단이 동시에 이 집단에 다수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집단의 경우 30대 이하가 36.5%를 차지한다. 이 집단의 경우 2집단 다음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었으나 주택소유나 자동차소유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다. 63.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72.3%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집단은 흑자가계에 비해 적은 수준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높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적자가계 유형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표 14>는 각 적자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흑자가계를 비교집단으로 하였고, 흑자가계에 비해 각 적자가계에 포함될 확률의 차이를 나타낸다. 각 집단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에 비해 군집 3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군집 5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여성가구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지출이 적자가계로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정한 지출비목에 국한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소비지출에 의한 적자가계집단인 군집 5는 소득출처가 여성가구주 가계에 비해 다양하고, 미래 가계상황에 대한 전망도 상대적으로 나은 남성가구주 가계가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원수가 많아지는 것은 적자가계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5 등 네 개의 적자가계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 적자가계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송금의 지출구성이 높았던 군집 4의 경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의 경우 군집 1과 군집 2의 경우 이들 집단에 속할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군집 3의 경우 20대이하 집단에 비해 30대, 40대, 50대 집단이 상대적으로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군집 3이 교육비 지출로 인한 적자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군집 4의 경우 20대 이하에 비해 40대와 50대가구가 이 유형의 적자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5도 유사하게 40대와 50대가구

〈표 14〉 각 적자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로짓분석 결과(비교집단: 흑자가계)

독립변수		1집단 (보건의료비형)	2집단 (생계형)	3집단 (교육비형)	4집단 (송금형)	5집단 (과소비형)
가구주성별	여성	-0.075	-0.002	0.153 **	-0.042	-0.058 *
가구원수	(연속값)	0.063 **	0.098 **	0.272 **	-0.287 **	0.126 *
가구주 연령 (20대이하)	30대	0.049	-0.045	0.243 *	0.161	0.067
	40대	0.070	-0.007	0.880 **	0.555 **	0.180 **
	50대	0.085	-0.0006	0.706 **	0.638 **	0.218 **
	60대 이상	0.175	-0.187	-0.159	0.121	-0.022
교육수준 (중졸이하)	고등학교	0.014	0.081	0.274 **	0.063	0.132 **
	전문대학	0.092	0.072	0.279 **	0.078	0.170 **
	대학이상	0.057	0.055	0.369 **	0.062	0.243 **
가구구분 (노무직)	공무원	0.150	-0.341 **	0.195 **	0.306 **	0.134 **
	사무직	0.225 **	-0.338 **	0.244 **	0.243 *	0.223 **
	생산직	0.092	-0.234 **	0.030	0.117	0.035
맞벌이여부	맞벌이	-0.145 **	-0.067	-0.133 **	-0.125 *	-0.131 **
주택소유여부	있음	0.134 **	-0.338 **	0.176 **	0.164 **	0.151 **
자동차소유여부	있음	0.113 **	0.020	0.067	0.168 **	0.345 **
가계소득 (1분위)	2분위	-0.374 **	-0.749 **	-0.475 **	-0.267 **	-0.790 **
	3분위	-0.595 **	-1.002 **	-0.757 **	-0.343 **	-1.184 **
	4분위	-0.845 **	-1.103 **	-1.009 **	-0.371 **	-1.601 **
	5분위	-1.017 **	-1.051 **	-1.319 **	-0.374 **	-1.977 **
상수항		-1.854 **	-1.291 **	-2.975 **	-1.663 **	-1.082 **
likelihood ratio		-5347.157 **	-3486.024 **	-7522.578 **	-3645.871 **	-17127.188 **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가 20대 이하 가구에 비해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대 가구에 비해 40대와 50대 가구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군집 3과 군집 5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교육비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보여졌듯이(양세정, 이윤금, 1997), 가구주의 높은 교육수준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로 이어지면서 교육비지출이 적자가계로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

는 군집 5의 경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었다. 가구주의 높은 교육수준은 합리적인 소비지출을 하도록 하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소득에 비해 높은 소비지출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주직업별로 비교해 보면, 가계소득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가구주가 공무원이거나 사무적인 경우 노무직가구에 비해 군집 3, 4, 5 적자가계에 속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주직업이 공무원 또는 사무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소비지향적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적자가계집단인 군집 2의 경우 노무직 가구에 비해 노무직이 아닌 가구가 이 유형의 적자가계에 속할 확률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적자가계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적자가계에 속할 확률이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의 취업이 가계경제수지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택소유여부는 적자가계여부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적자가계 유형에 따라 정적(+)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때론 부적(-) 영향력을 주기도 하였다. 군집 2를 제외한 대부분의 적자가계유형에서 가계소득과 여타가구특성을 동일하다고 하였을 때,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적자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주택을 소유한 가구들이 주택구매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면서 소비성향이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단 월세비지출이 적자의 주요요인이었던 군집 2의 적자가계 유형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이에 속할 확률이 도리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의하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는 적자가계에 속할 가능성이 컸다. 적자가계의 5개 군집별로 속할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를 소유한 가계는 군집 1, 군집 2, 군집 5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소유는 자동차와 관련된 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소유를 통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가계를 적자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군집 2의 경우 저소득적자가계이기 때문에 자동차소유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여타 가구특성이 동일할 때, 가계소득 수준

이 낮은 것은 모든 적자가계유형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회귀계수로 미루어볼 때 군집 5와 군집 3이 가계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장 큰 폭으로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적자가계의 특성을 흑자가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적자가계 유형 분류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적자가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05년 도시가계연보 원자료 중에서 도시근로자가구만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조사기간 중 가계소득에 비해 가계지출이 초과하는 경우는 적자가계로 정의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조사대상 5,0207가구 중 적자가계는 25.3%에 해당하는 12,687가구였다. 소득5분위계층 중 최하 20%에 속하는 가구의 절반이 적자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계는 월평균 231만9천원을 벌고, 329만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평균소비성향은 142.1이었다. 평균소비성향이 200이 넘는 가계도 적자가계의 13.8%를 차지하였다. 흑자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63.7에 불과하였다. 적자가계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로짓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타변인의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적자가계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구주가 20대이하인 가구에 비해 3~50대 가구들이, 노무직가구에 비해 공무원이거나 사무직가구인 경우 적자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

면 맞벌이가구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적자가계가 될 확률이 적었고, 가계소득이 높아질수록 적자가계에 속할 확률은 적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양한 특성의 적자가계를 분류하기 위하여 소비지출구성비에 근거하여 5개의 군집으로 적자가계유형을 분류하였을 때, 적자가계의 58.5%는 전반적과소비형 적자가계였다. 이들의 경우 높지 않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수준의 소비지출행태를 함으로써 적자가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집단의 경우 평균소비성향이 1.379로 타집단에 비해 가장 낮아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경계부분에 위치한다. 흑자가계와 비교할 때, 주택과 자동차가 있는 경우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무원이거나 사무직인 경우 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적자가계의 6.5%는 타가구로의 송금에 소비지출의 43.5%를 이전함으로써 적자가계가 된 경우이다. 가계소득수준이 높지만, 송금의 규모가 280만원에 이르면서 적자가계가 된 경우이며, 이들의 평균소비성향 또한 5개의 적자가계집단 중 가장 큰 1.67이었다. 이 밖에 적자가계의 17.8%가 교육비지출이 35.9%에 이르는 집단이며, 10.2%가 의료비지출과, 7.0%가 주거지지출과다가 원인이 되어 적자가계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근로자가구 중 적자가계의 비율은 25.3%였다. 적자가계의 40%가량이 소득최하위 20%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득부족에 따른 생계를 위한 적자가계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최상위 20%에도 적자가계의 8.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자가계가 단지 소득부족에서의 문제가 아닌 소비패턴의 의한 결과인 경우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 적자가계의 분석이나 고소득적자가계의 분석을 통해서 이들 적자가계의 원인규명과 문제점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적자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145.2였다. 적자가계의 절반이상이 평균소비성향이 123 이하로, 가계소득의 1.23배 이하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자가계 대다수가 큰 폭의 적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흑자가계로의 이전이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가계소득의 2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가구도 적자가계의 1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의 경우 과도한 소비지출로 인해 가계운용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

셋째,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소득규모를 살펴보면, 흑자가계의 경우 배우자소득과 기타가구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자가계에 비해 크다. 배우자소득은 2.24배이고, 기타가구원소득은 3.10배였다. 이는 가계소비지출을 충당하는데 소득의 부족을 느끼는 가계의 경우 가구주 외 가구원의 소득창출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적자가계로의 진입을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자가계 여부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맞벌이여부는 적자가계가 될 확률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흑자가계와 적자가계의 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 적자가계의 경우 송금, 교육비, 교통통신비 등에서 흑자가계에 비해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료품비, 외식비 등에서는 흑자가계의 지출구성비가 적자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적은 가계소득을 가지는 적자가계가 일반적으로 선택채로 구분되어지는 송금, 교육비, 교통통신비 등에서 높은 소비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적자가계가 저소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을 가진 적자가계들이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적자가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가 필요했다.

다섯째, 적자가계 중 절반이상이 과소비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의 소득수준은 생계형과 큰 차이 없었으나 이들의 평균소비성향은 높았다. 소비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는 집단이다. 이들의 적자폭은 크지 않으나, 선택성 지출비중이 높고, 고학력이고 주택과 자동차 보유 가계가 많다는 점에서 재무관리의 재교육이 필요한 집단이다.

여섯째, 적자가계 중 두 집단은 자녀교육과 관련이 높았다. 이들 집단은 여타적자가계에 비해 높은 소득을 가진 집단으로 과도한 교육비 및 송금이 가계의 적자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적자가계 중 17.8%가 교육비형적자가계였고, 6.5%가 송금형 적자가계였다. 결국 적자가계 중 1/4 수준인 24.1%가 자녀교육비가 원인인 셈이다. 이들 집단은 주로 4, 50대 가구들이고 가구주가 고학력이며, 공무원이나 사무직 등의 가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적자수준은 여타 적자가계에 비해 높은 편으로, 특히 송금형집단의 경우 적자폭이 한달에 226만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송금형집단의 경우 자산 감소폭이 다섯 개 집단 중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마련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계적자를 야기할 수준의 과도한 자녀교육관련비용이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필요하다.

일곱째, 유형별로 적자가계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모든 적자가계유형에 대해 가계소득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나, 다른 가구특성 변수들의 경우 적자가계유형에 따라 때론 부(-)적으로, 때론 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가구특성으로 대변되는 현재소비에 대한 선호도

나 소비패턴이 다르기 때문이며, 소득의 부족에 의한 적자가 아니라 소비성향이나 추정되는 생애소득의 수준의 차이에서 오는 적자유형의 차이로 판단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형적자가계와 과소비형적자가계에 속할 확률이 커지는 것은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음에 따라 소비지출의 수요가 다양해지기 때문이었다.

2. 제언

적자가계는 지속적인 이슈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몇 가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엄밀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시 소비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자산증가부분으로 처리하였다. 최근 주택부금상환은 가계로 하여금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가계운영이 적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따라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주택부금상환금이 가계의 적자/흑자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원자료는 자산과 부채의 총액에 관한 자료가 없었다. 자산과 부채 정보를 포함하는 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가계의 적자가 자산과 부채의 규모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에 대한 정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동일한 적자규모라도 자산의 감소를 통한 적자분을 상쇄하는 것과 신규부채를 통해 적자분을 상쇄하는 것은 가계운용 면에서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가계대출제도의 활성화와 대출이용의 편의성이 부합되면서 가계의 신규부채수요는 계속 창출될 것이며, 적자가계의 특성도 계속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적자가계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미래예측과 정책적 시사점을 위해서는

시계열자료분석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분석대상자는 소득 자료를 제공하는 2인 이상의 근로자가구였다. 소득의 불규칙성을 고려해 볼 때 적자가계는 비근로자가구에서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비근로자가구를 포함하는 적자가계 분석이 필요하다. 다수의 노인가구를 포함하는 독신가계가 열악한 경제여건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이들 역시 적자가계 분석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적자가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자료 확보와 함께 이들 두 집단을 포함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는 사회적 이슈이다. 적자가계의 유형분류와 각 유형의 분포를 알아봄으로써 관련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자가계 중 절반이 넘는 가계가 선택재적 소비성향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적 캠페인이나 재무관리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가계수지를 개선 내지는 방지할 수 있는 집단이다. 또한 높은 교육열과 함께 자녀교육비와 타가계로의 송금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적자의 중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적자는 단기적으로 가계수지의 악화를 가져와 노후대비의 부족을 야기하며, 결국 가까운 미래에 빈곤노인층의 창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적자가 미래가계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의 소득과 소비지출 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소비생활센터 등 기존 조직체계를 활용한 재무상담과 재무설계 서비스의 확대는 과도한 소비로 인한 빈곤층 및 미래의 노인빈곤층 창출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생계형과 보건의료비가 원인인 적자가계의 경우 현재의 필요소비를 하기 위한

가계의 보유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개별가계의 의지만으로 가계경제수지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서의 적자 유형과 차이가 있다. 이는 복지정책이 유희인력의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필요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더불어 의료비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한 가구원의 의료비가 전체가구원의 경제적 복지를 격감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류재술(1992). 80년대말 도시근로자 가구의 과소비행위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특히 80년대말 과소비적 특성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3(2), 59-74.
- 2) 박명희, 이승신, 배미경(1996). 도시근로자 가계의 소비와 영향변수-재무비율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5), 209-222.
- 3) 박종규(2007). 한·일 최저소득층 평균 소비성향 비교 및 시사점. 금융포커스 16(12), 8-9.
- 4) 성영애, 최현자(2000). 유형별 부채의 보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2), 65-77.
- 5) 양세정, 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자녀 수와 자녀성(性)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8(2), 81-102.
- 6) 원종욱(2003). 경제위기 이후의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생활실태. 보건복지포럼 11월호, 19-35.
- 7) 이성림(2005). 과소비·부채가계의 가계경제구조 분석-과소비·부채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1), 73-95.

- 8) 이성림, 성영애(2007). 적자부채가계의 지출 구조 및 유형별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5(10), 45-57.
 - 9) 이은영, 허은정(2005). 부채가계의 연체행동 및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6(1), 179-194.
 - 10) 전승훈, 임병인(2008).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의 변화분석. *재정학연구* 1(2), 133-162.
 - 11) 정영숙(2006). 가계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거시경제 요인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9(6), 2483-2504.
 - 12) 조혜진, 최현자(2004). 소비자의 신용과다 사용 심각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845-859.
 - 13) 차은영, 최은영(2007). 소득불확실성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효과. *여성경제연구* 4(2), 9-113.
 - 14)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 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15) 통계청. www.kostat.go.kr.
 - 16) 한국은행(1999, 2009). 가계신용동향.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 17)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74.
 - 18) Bae, M., Hanna, S. & Lindamood, S. (1993). Pattern of overspending in U.S. household.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1-30.
 - 19) Bryant, W.K. & Zick, C.D.(2006).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2nd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 Davis, E. & Carr, R.(1992). Budgeting practices over the life cyc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3-16.
 - 21) Fan, X., Chang, Y. & Hanna, S.(1992). Optimal credit use with uncertain incom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3-16.
 - 22) Hanna, S.(1989). Optimal life cycle saving.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4-12.
 - 23) Magrabi, F.M., Chung, Y.S., Cha, S.S. & Yang, S.(1991). *The economics of household consumption*.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 투 고 일 : 2010년 1월 1일
 - 심 사 일 : 2010년 1월 8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2월 24일